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원불교 3대 종법사인 대산 김대거 종사(1914~1998)는 ‘감수화 백수채(甘受和 白受彩)’라 했다. 단 것은 잘 화(和)하고 흰 것은 색을 잘 받는다는 말이다. 종교인들은 백수채 공부를 잘해야 한다. 공자께서도 ‘회사후소(繪事後素)’라고 하였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먼저 바탕을 희게 만들어야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채색할 수가 있다.

우리가 선(禪)을 하는 목적도 마음 바탕을 맑고 깨끗이 하기 위함이다. 마음이 구겨지면 그것을 법 다리미로 파야 하고 또 마음에 물이 들면 그 물을 빼는 일에 도인이 되어야 한다. 무명(無名)에 가리고 덮여있을 때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와 선으로 끊임없이 정진 적공을 하여 청정심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

마음의 더러운 물을 빼는 일에 공돌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성탐에 가서 심고 모시면서 빠질 때도 있고, 또 염불하면서 해결될 때도 있고, 또 호흡을 하면서 비워질 때도 있다. 내 마음이 뻗뻗하고

단 것은 잘 화하고 흰 것은 색을 잘 받는다

주름이 지면 그것을 잘 녹이고 펴야 쾌활하고 좋아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구김을 펴고 마음의 맺물을 빼는 일에 항상 공돌여야 한다. 명예에 물들어 있는지, 식탐에 물들어 있는지, 재물에 물들어 있는지 살펴서 그 물들어 있는 것을 세탁하고 가려진 마음을 벗겨내는 것이 청정일념을 만드는 선 공부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다가 그 마음으로 죽으면 열반에 드는 것이며, 살아있을 때도 텅 빈 그 마음을 늘 가지면 열반락을 누리는 것이다.

소태산 대중사께서는 이동안 선진 열반 소식을 듣고 낙루(落淚)하자, 제자들이 크게 상심하시지 말라고 위로했다. 그러자 “마음까지 상하기야 하리오마는 내가 이 사람과 갈리면서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다”라고 했다. 공자도 아끼던 제자 안연(安堧)이 죽자 크게 슬퍼하며 “내가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는 해야지.”라고 하셨다고 한다. 이와 같이 텅 빈 마음을 많이 단련하면 말은 ‘죽일 놈’이라고 해도 그것이 마음속까지 배지 않고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해도 그 애정이 속이 상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 공부를 하지 못하면 기쁨에 취해서 죽을 지경이고 또 슬픔에 취해 죽을 지경이 된다. 특히 생사를 넘나들 때 청정일념이 되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울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니 못 견디게 슬플 것이다. 우리가 평생을 해야 할 일은 동정역순 간(動靜逆順間)에 물들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마음에 공을 들이는 일이다. 그 위에 신심을 내고 또 공심을 내고, 자

비심과 자신이 종교를 사랑하는 마음도 내야 사람도 잘 다스릴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감수화 공부를 잘해야 한다. 달 감(甘)자, 받을 수(受)자, 화합 화(和)자, 화합을 하려면 사람이 조금은 모자란 듯하고 달콤해야 사람이 따르는 법이다. 사람이 처음 공부할 때는 총명하기를 바라는데 총명해진 후에는 다시 어리숙하기가 참 어렵다. 너무 총명하고 너무 밝은 사람 옆에 가면 함께 있는 사람이 불편하다. 공부가 출가위(出家位), 여래위(如來位)가 되려면 적어도 어리숙하게 보여서 상대방이 나를 달콤하게 생각해야 화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생전 대산종사를 보면 어느 때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무심도인 같을 때가 가끔 있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총명해지는 단계까지 올라가서 사리를 훤히게 알기도 어렵지만 그 빛을 감추기는 더욱 어렵다. 이것을 산으로 비유하면 정상에 오르는 것은 출가위이고 다시 내려와 시장 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여래이다.

흰 마음을 단련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단련해야 선의 진체(眞體)가 드러나고 그렇게 해야 동정역순 간(動靜逆順間)에 물들고 막히지 않아서 자유를 얻는다. 또 사람들을 만나서 취사하고 불공을 할 때 또 달콤하고 어리숙하면서 주체를 잃지 않고 불공도 해야 할 것이다. 마음공부를 하면서 최고의 경지에 가려면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어리숙하고 또 때로는 엄한 면이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마음을 단련해야 하겠다.

기고



강정희  
전 중학교 교사·소설가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저 시절만 해도 아파트에 자연 친화적 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 후로 아파트는 리모델링 재건축 신축을 계속 해오며 외양도 내부도 크게 변화하였다. 노래도 새로운 분위기의 곡이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아파트, 아파트’라는 가사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후렴구가 강렬한 노래가 세계적인 무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도록 지은,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아파트먼트의 사전적 의미다. 우리나라 가구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그냥 ‘집’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다.

요즘 지은 아파트는 공간 효율을 위해 발코니를 없애고 창밖에 쇠울타리 높이를 높였다. 이중유리문으로 소음과 외기를 완벽에 가깝게 차단하며 거실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하기가 쉽지 않다. 고층이라면 집 안 거실에서도 마치 절벽 위에 서 있는 듯 지상 세계가 아득하다. 단지 내에 공원 놀이터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쉽다. 그에 비하면 전면과 후면에 너른 발코

아파트 아파트

니가 있는 오래된 15층 아파트의 3층, 우리집은 마당이 있는 주택처럼 편안하다.

얼마 전 여행 삼아 서울에 다녀왔다. 공연과 전시를 보러 가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큰 시장과 호젓한(호젓하기를 바라며) 한옥마을을 목적지로 정했다.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것과 현장의 공기를 숨 쉬며 걷는 답사는 감흥이 다르리라 기대했다. (과연 엄동설한 정월의 서울 공기는 대단했다.)

서울은 건물로 가득 차 있었다. 콘크리트와 유리와 철재로 지어 올린 건물들, 서울은 건물의 숲이었다. 우리 건축 기술, 정말 훌륭하구나. 하지만 팬텀을까. 사무실 아닌 주거 건물이 초고층이라니.

하지만 문제는 높이가 아닌 가격. 겹겹이 층층이 지어 올린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수십억 원. 그 가격을 모두 합산해 보면 어떨까. 아마도 헤아리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나라일지도 모른다. 광주 변두리에 사는 안빈낙도 자연인에게는 두서없이 이상한 생각이 마구 마구 떠오른다.

이렇게나 아파트가 많은데 집이 없는 사람은 또 그렇게나 많다니. 그 점도 이해 불가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시간과 같은 속도로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간극을 따라잡거나 좁힐 수 없다. 성실한 노동 소득만 모아서 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아파트, 사물의 가격이 정해지는 기본 요건인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도 예외이고, ‘감가상각’이라는 명목에서도 벗어난 특수한 재화인 아파트는 괴물인가.

르 코르뷔지에 등 현대 건축가들이 도시 밀집 지역의

서민을 위해 고안하여 짓기 시작한 아파트는 서울의 경우 높은 가격으로 서민의 생애 대부분을 담보하는 고통이 되었다.

아무래도 조선시대 남산 목석골 선비 허생이 부활해서 금융업자 변부자에게 돈을 대출받아 수도권 아파트를 모조리 사서 묶어 놓은 성싶다. 심지어 허생이 한돌이 아닌 것 같다. 당시 허생은 제수용 과일을 매점매석하여 유통을 뒤흔들었고, 이어 제주에서는 갖과 망건의 재료인 말총을 사재기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허생들이 제수 과일과 말총 대신 아이템을 아파트로 정한 것이 틀림없다. 이 시대의 허생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소위 부 좋고 넓고 높은 집, 멋지게 인테리어한 집에 살겠다.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이는 자주 부동산 동향을 살펴면서 집을 사야 할지, 산다면 어느 시점에 사야 할지 고민하고, 금리와 대출이자를 계산한다. 자녀가 있다면 방을 마련해 주기 위해 평수를 늘릴 공리를 해야 한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도 미래의 집값이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 실존 철학적 사유는 사치다. 삶의 기본 조건인 주거 공간 집 걱정, 개인의 뉘앙스.

실학자 박지원은 일찍이 허생을 내세워 조선 후기 사회현실을 짚어 비판하였으나 해법은 알려주지 않았고 지금도 시원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노력해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질 거라는 낙관을 가진 이도 없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이들은 나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인간을 압도하는 초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서울에서 집을 생각하며 남대문시장과 익선동 골목을 걷고 또 걸었다.

기고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나는 장애인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은 장애인 인권활동가로 이 도시를 살아가고 있다. 이 두 정체성은 나에게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져 왔다. 사회는 누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과연 모두를 시민으로 전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내 삶의 많은 순간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기준과 마주하며 조정해 온 시간이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무엇이 어렵다고 판단되는지가 먼저 주어졌고, 그 판단은 언제나 개인의 가능성보다 사회가 상정한 시민의 모습에 근거해 내려졌다. 장애인의 삶은 늘 조건부였고, 가능성은 허락의 형태로만 존재했다.

나는 오랫동안이 기준이 왜 나의 삶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지 묻지 못한 채 살아왔다. 삶의 선택지와 참여의 범위는 개인의 의지보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 의해 결정되었다. 어디까지 가능한지, 무엇을 감내해야 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만 나의 삶을 설명해야 했다.

정책과 제도는 흔히 보편을 말한다. 그러나 그 보편이 실제로 누구의 일상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기준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등에 제약이 없고, 의사결정에 즉각 참여할 수 있는 삶이 기본값이 된다.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삶은 예외가 되고, 추가 설명과 보완의 대상으로 남는다.

광주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자처해 왔다. 이 이름은 오랜 역사와 시민들의 투쟁이 만들어 낸 것이기에 가깝지 않다. 그렇기에 민주와 인권이 선언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누가 시민으로 인정받는지, 누구의 삶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지를 통해 일상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광주에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예산, 정책이 존재한다. 겉으로 보면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장애인의 삶을 직접 살아보면,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삶을 실제로 지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제도는 있지만, 선택은 제한되어 있고, 가능성은 여전히 조건부다.

정책의 성과는 숫자와 지표로 설명된다. 이용률과 집행률은 행정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지만, 장애인이 어떤 선택을 하며 하루를 살아가는지는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같은 제도 아래에서도 누군가는 가능성을 넓히고, 누군가는 반박해서 자신의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여전히 많은 정책은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 질문은 선의처럼 보이지만, 장애인을 시민이 아닌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 고정한다.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 장애인에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해야 한다.

공식적인 논의의 자리는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장애인의 말은 자주 요약된다. 이미 검토되었다는 설명 속에서 당사자의 경험은 참고 의견으로 밀려난다. 중요한 결정은 다른 곳에서 내려지고, 장애인에 결과를 받아들이는 위치에 놓인다. 그래서 같은 요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라는 말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누군가의 삶을 뒤로 미루는 선택이며, 현재의 배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기다림 속에서 장애인의 삶은 멈춰 서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 왔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 사회는 언제나 누군가의 말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말해진 삶은 질문이 되었고, 그 질문 앞에서 기준은 흔들렸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지금도 장애인 권리를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보호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하고 결정하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다. 복지는 출발선일 수는 있지만,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장애인은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하는 존재여야 한다.

이 질문은 행정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지를 묻는 말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존중하기로 선택하는지에서 사회의 방향은 다시 정해질 것이다.

社說

사법부, 엄중한 심판으로 내란 반복 끊어내야

조은석 내란특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400여일 만에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재판부의 판결만 남게 됐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이후 두 번째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도 반성도,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는 피고인에게 당연한 구형이다.

특검팀은 특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중형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엄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쿠데타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서일 것이다.

특검의 설명이 옳더라도 국민이 모를 리 없다. 46년 전, 5월 광주를 총칼로 짓밟은 주범 전두환은 내란목적살인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사형(1심) 선고 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췄고 특별 사면까지 이뤄지면 서 전씨는 구속 이후 2년 만에 풀려났다. 사면 이후에도 뉘우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발포 명령 책임자·헬기 사격·암매장 등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를 바랐던 광주 시민들의 소망을 외면했고 오히려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하는 일까지 저질러 지역민의 공분을 샀다.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데 성급하게 죄를 ‘면’해 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은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만담재판’, ‘예능재판’이라는 지적을 들었던 지극연 재판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수치스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사법적 기준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 전남의대 설립 공식화, 지역숙원 달성해야

정부가 지역 숙원 사업인 전남의대 설립을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며칠 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의대 없는 지역’ 의 의대 신설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으로, 보정심의 발표대로라면 정부가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의로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부족 상황 해소를 목표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증원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의사인력 공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 오는 2035년에는 의사 수가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만 1136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데 따른 것이다.

보정심은 의료 취약지 등 특정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력은 전부 지역의사제 인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동시에 추가 의사 양성 방안으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위해 인력 규모와 시기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남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인되면서 당사자인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대학 통합 찬반 투표에서 순천대 학생의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통합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라 오는 진행되는 순천대의 재투표 결과에 따라 전남의대 문제는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전남도도와 순천대·목포대는 통합 국립의대 2027년 개교 및 신설 의과대학에 정원 최소 100명 이상 배정, 전남 동·서부권에 각각 500명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갖춘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노령 인구가 많은 전남은 의료 사각지대다. 지역민들의 생명권이 달린 숙원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남도, 학교 등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FC가 갈림길에 섰다. 지난 4년 이정호 감독을 앞세운 광주FC는 ‘정효불’로 광주 축구 역사를 새로 썼다. K리그에 뜨거운 돌풍도 일으켰다. 기존의 지도자 틀을 새로 바꾼 이정호 감독, 냉정하게 평가하면 광주FC라 가능했던 결과였다.

광주FC는 ‘배고픈 구단’으로 통한다. 시민구단의 재정적 제약에 ‘아구도시’ 광주라는 한계도 존재했다. 여기에 크고 작은 잡음이 이어지면서 세금을 낭비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

새로운 생각과 방식으

로 무장한 이정호 감독은 광주FC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깼다.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만큼 대신 전권을 쥐고 자신의 색으로 팀을 꾸릴 수 있었다. 또 축구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기에 ‘초보 감독’으로 지휘봉을 들 수 있었고 마음껏 그라운드를 실험무대로 삼았다. 생각하는 지도자, 열심히 뛰는 지도자에게 광주FC는 새하얀 도화지 같은 팀이었다.

광주FC의 축구 밑그림을 완성한 이정호 감독은 리그 최고의 대우를 받고 수원 삼성으로 이적했다. 그리고 3년간 이정호 감독의 수석코치를 맡았던 이정규 감독이

그 뒤를 이어 사령탑에 올랐다. 이정호라는 그들은 신임 감독에게 독일 수도 있고, 독일 수도 있다. 두 사람의 결은 비슷하다. ‘공간’을 바탕으로 팬들을 위한 ‘공격적인 플레이’가 그들이 추구하는 축구다.

이정호 감독이 그려놓은 밑그림 위에 이정규 감독이 어떤 색을 더하느냐에 따라서 광주FC의 축구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고,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다. 앞서 견고한 시스템과 확실한 방향이 없었던 만큼 지도자의 색과 역량에 따라 광주FC는 요동쳤다.

그럼에도 광주FC는 기회의 팀이었다. 이곳에서 많은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돋움했고, 해

외 진출의 꿈을 이루기도 했다. 광주FC의 방향은 ‘사람’에서 찾아야 한다. 어떤 지도자가 오더라도 광주FC만의 색으로 지역 선수를 키우고, 이들을 더 큰 무대로 내보내면서 지역과 호흡하며 프로 구단으로서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남달랐던 전임 감독, 상반기 선수 등록 금지라는 악재 속에 이정규 감독과 광주FC가 지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을 디지털·체육부장 wool@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제 2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